

#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집중

###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주시가 시민과 함께 기후변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17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 연구용역은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될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평가지표를 세우고, 개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분야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핵심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문제 등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다.

이를 위해 시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해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핵심과제 등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는 17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과 에너지 자립기반을 확대하는 등 저탄소 녹색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들과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

등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전략들이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 결과물에는 이와 함께 활기찬 경제생태계와 풍부한 도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사업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관련 부처와 공유해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이 모두 함께 실천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천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올해 열리는 '2021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중할 것"이라며 "차보다 사람인 도시,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도시로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 '발달장애인 치유농장' 국민이 뽑은 7대 중점 협업과제 선정

###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 조성 사업

전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최낙송) 등 5개 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운영하는 치유농장이 국민들이 뽑은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국민 손으로 뽑은 7대 중점 협업과제'에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 조성 사업' (이하 스마트 케어팜 사업)이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공공기관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힘을 합쳐 추진하는 협업과제 24개를 발굴해 이 중 25개를 우수과제로 추려 지난 4~14일 국민 3,700여 명의 심사를 거쳐 '스마트 케어팜 사업' 등 7개 사업을 중점 협업과제로 뽑았다.

전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스마트 케어팜 사업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등의 협업으로 추진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가 덕진구 장동에 1,134㎡ 규모의 유휴 국유지를 제공하고 시와 협업기관이 함께 편의시설 등을 조성한 후 참여 시설을 모집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스마트 케어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4차 산업과 연계돼 조성된다. 발달장애인이 치유농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비대면)으로 농작물을 키워볼 수 있는 모바일 앱이 개발된다. 원두막에는 발달장애인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VR(가상현실) 기기와 따듯함을 유지할 수 있는 탄소발열 바닥이 설치된다. 트리아트를 활용한 포토존도 구축된다.

시는 스마트 케어팜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2곳의 발달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치유농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따뜻한 시설에서 지내는 발달장애인이 치유농장을 체험하면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스마트 케어팜은 코로나19로 시설과 가정 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체험 활동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국민 손으로 우수 협업과제로 인정받은 만큼 협업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17일~5월 24일까지 실시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이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9,781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의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전북지방병무청에 검사일자 연기 문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10개 언어 번역·제작

### 전주시-전주교육지원청-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학생 안정적 학교생활 도움 기대

전주시가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손을 맞잡고 10개 언어로 번역된 초등가정통신문을 제작했다. 그동안 익숙하지 않은 한글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17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번역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가정통신문 번역본 제작 발간식'을 가졌다.

시와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책자로 제작해왔다.

가정통신문 번역본은 교의체험학습 신청서와 학습준비물 구비 안내, 학부모 초청 수업공개 안내,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 등의 및 선호도 조사,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안내 등 29종으로 구성됐다. 번역본 언어는 ▲몽골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아랍어 ▲중국어 ▲영어 ▲타갈로



전주시는 17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번역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가정통신문 번역본 제작 발간식'을 가졌다.

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소수 언어까지 포함됐다.

번역본의 경우 한글파일로 제작돼 각 학교마다 학사 일정에 맞게 날짜, 연락처, 학교명만 넣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번역본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와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jije.kr)에 올라갈 예

정이다. 시는 그간 한글로 된 가정통신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다문화가정(중도입국) 초등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자봉센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 개최

### 7명 전주시장 표창

전주시가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온 소방관 등 자원봉사에 앞장선 시민 7명을 으뜸자원봉사자로 선정했다.

(사)전주시자봉센터(이사장 황의욱)는 17일 전주시청에서 '2020년 4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어 일반인 5명과 청소년 2명 등 총 7명의 으뜸자원봉사자에게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으뜸자원봉사자는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22만 명의 전주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 활동횟수, 봉사시간, 참여연수 등의 정량평가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선정된다.

일반인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야간 방범활동에 힘써 서안산동 자율방범대 소속 윤정순 씨(64·여) ▲기쁨누리 미혼모 시설에서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미용 활동을 펼친 헤어니눔공작소 봉사단체 소속 이은경 씨(54·여)가 영예를 안았다.

특히,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지원과 확진자 이송 업무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온 전주완산소방서 안국기 소방장(36)과 전주덕진소방서 오현승 소방사(30)도 함께 표창을 받았다.

청소년 부문에서는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한 리영웅 학생(18)과 복지기관에서 식재료 준비와 급식소 환경정비에 힘쓴 김규민 학생(15)이 선정됐다.

황의욱 전주시자봉센터 이사장은 "4분기에는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온 소방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다 함께 행한 전주를 만들 수 있도록 봉사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